금주의 법구-〈법구경〉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로운 삶이 최상의 생활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16일)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南北 함께 한반도 평화 발원

불기2562년 봉축법요식 조계사 등 전국서 봉행

조계사에 1만여 대중 운집
사회적 약자도 대거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 보내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 발표
"대승보살도 국민화합 회향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서 부처님 탄생을 기리는 봉축법요식이 일제히 거행됐다. 특히 남북불교도들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공동발원문을 발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차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올해 봉축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중앙종의회의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각 정당 대표와 서울시장 · 교육감 후보, 김부겸 행안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 김희중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각국 주한 외교 대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했다.

아울러 사회노동분야서 약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선 조계종을 위해 양윤경 제주4.3 희생자유족회장, 김승하 KTX해고여승무원노조지부장과 정미정 조합원,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노조지회장과 오수일 조합원,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축하했다.

법요식은 도량결계의식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명고 · 명종 △삼귀의례 △반야심경 독송 △관불 △마정수기 △헌촉 · 헌향 · 헌다 · 헌화 △축원 △불자대상 시상 △봉축사 △대통령 축사 △법어 △남북공동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불교는 소중한 정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변경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에 방문한 관계로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통해 축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참으로 특별하다. 원래의 뜻과 이름을 찾고자 했던 불교계의 오랜 염원이 이뤄져 불자 여러분께서 염화미소를 지으실 것 같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스스로 깨닫는 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불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종교를 넘어 그 자체로 소중한 정신이자 문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름을 실천하는 파사현정,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비행은 우리 사회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한 뒤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고승 대덕 스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국 사찰서 타종과 예불로 간절히 기도해주신 불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처음 일곱 걸음을 걸으신 후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일성을 보이셨다. 이는 만천하에 본래부처를 선언하심이요, 생명의 존엄과 천부적 자유를 내보이시어 일체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본래의 성품인 참 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연등을 밝혀 부처님을 맞이하는 수승한 인연이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대신하는 동체대비의 대승보살도가 국민통합으로 회향하는 공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사회적 동체대비의 실천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 자신이 부처임을 믿고 본래의 청정심을 회복해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일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북불교도, 통일보살 발원

한편 법요식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3년 만에 채택한 남북불교 공동발원문을 종회의장 원행 스님이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남북불교도는 발원문을 통해 "대결과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 땅에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 시대를 갈망해온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들은 판문점 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법등으로 높이 들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의 법음이 높이 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넘치게 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백제권 최대 사찰 대통사지 보존된다

문화재청 매장분과위 '현지 보존 필요' 결의

공주시의 한옥주택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백제권 최대 사찰 '대통사지'의 보존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모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5월 16일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공주 '대통사터 추정지(반죽동 197-4번지)'에 대한 보존방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매장문화재분과 소속 위원들은 "대통사지 추정 발굴지는 현지 보존이 필요하며, 구체적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인접지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527년 성왕이 백제 수도였던 웅진에 창건한 사찰이다. 성왕은 중국 양나라에서 경전을 전해 받고 당시 황제였던 무제를 위해 사찰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사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존속됐지만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통사 위치 확인 위한 사지 발굴 · 연구 초석 다져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부근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통사(大通寺)'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이 나와 사지였음이 밝혀졌지만 더 자세한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충남 공주시 반죽동 한옥주택부지 사전 발굴조사에서 대통사의 위치를 밝힐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하지만 해당 유물 출토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공주시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고도(古都)이미지 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대통사지의 온존한 보존 · 발굴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는 지난 5월 3일 흥사단 교육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사지의 온전한 조사와 보존을 문화재청과 공주시에 촉구했다. 당시 학자들은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이주책 마련 △대통사지 추정 지역 전체를 매수 후 장기 발굴 △대통사지 복원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 등을 제안했다.

이번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결의는 대통사지의 온전한 보존 · 발굴에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주시와 함께 대통사지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이번주 감면호(20면)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

접수마감
6월 30일 까지
※선착순 모집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